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주일, 수요일, 토요일 예배 말씀 성경  
 주일 - 고린도전서  
 수요일 - 시편(시편 5편)  
 토요일 - 빌립보서
-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흠뻑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및 아시안 혐오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4/18		허도행		
04/25	안영남	김유신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이번 주 설교

-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7절    제목: 십자가를 전할 때  
 기도제목: 1.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3.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 들어가는 말

2천 년 전에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를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1장 2절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린도교회 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쓴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도 수신자 가운데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우리 교회나 지구상 모든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 1.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교회

1장에서 고린도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냥 보면 한심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힘없이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2. 십자가를 전할 때의 태도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도, 힘으로 압박지르면서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모습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피 떨었노라' 십자가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과거 이슬람이 세상을 정복할 때,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코란, 이슬람 종교를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이슬람과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기독교도 과거에는 힘으로 무력으로 기독교를 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칼이 아닌데, 십자군이라는 군대는 정말이지 십자가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 3. 십자가를 바르게 증거하는 삶

사도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또한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나도 역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마음은 있는것인지! 십자가 -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내 것을 내어 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 나가는 말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남극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 앞에 온 인류가 서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 황제펭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보다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요. 황제펭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십자가를 외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강추위에 고 있는 우리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체온을 전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b>경배와 찬양</b>  시편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시편 5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1장(영광의 왕께)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4번 (시편 46편)	
찬 송 Hymn	359장(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 도(Prayer)	1부: 최태신 권사 2부: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고린도전서 2장 1~7절	
설 교 Message	십자가를 전할 때	
▲ 찬 송 Hymn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